

김명순 시에 나타난 분노 감정

송명희*

차례

1. 서론
2. 분노 감정과 페미니즘
3. 김명순 시에 표출된 분노 감정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분노 감정이 김명순의 시세계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라고 보고 그녀의 시-「싸움」, 「유리관 속에서」, 「내 가슴에」, 「저주」, 「유언」, 「외로움의 변조(變調)」, 「무제」2편 등-를 분석하였다. 그녀의 시에서 분노 감정은 1924년에서 1925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다. 이 시기는 그녀가 남성 문인들과 매체로부터 부당한 여성 혐오와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시기이다. 따라서 분노 감정은 그녀에게 위해를 가하는 공격자들에게 그것을 중단하라는 경고이며, 그들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표출된 저항 감정이다.

과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분노 감정은 표출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 감정이었다. 하지만 페미니즘에서 분노는 억압하고 억제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할 감정이다. 분노 감정이야말로 가부장제의 모순된 체제를 변화시키는 창조적 에너지이자 여성문학의 중요한 미학 원리이다.

* 부경대학교 교수

본고는 김명순의 시에 표출된 분노 감정이 젠더 불평등과 가부장제의 부당한 억압에 저항하는 정당한 감정이며, 자아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긍정 감정이라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시를 해석하였다.

그런데 본고는 분노와 더불어 슬픔, 우울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다. 왜냐하면 감정은 역동적이어서 슬픔은 언제든지 분노로 바뀔 수 있으며, 슬픔이 분노로 바뀌면 슬픔은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도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면 분노가 되고, 자신에게 돌리면 슬픔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아 내부를 공격하면 우울이 되는 등 분노, 슬픔, 우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마리 J. 마츠다는 소수자의 다수자를 향한 혐오 발언은 ‘분노에 찬 시’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종속된 집단의 지배 집단을 향한 중요감의 표현, 혐오, 그리고 분노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발언과는 달리, 지배 집단을 향한 구조적 지배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 J. 마츠다의 말처럼 김명순의 시에 나타난 분노 감정과 혐오 발언은 다수자인 남성을 향한 ‘분노에 찬 시’이다.

여성들을 향한 남성들의 혐오 발언은 젠더 위계 서열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을 열등하고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시킨다. 하지만 김명순은 자신의 시에서 여성 혐오에 침묵하지 않고 분노의 목소리를 냈으로써 혐오 발화자인 남성의 권위를 교란시켰다.

김명순의 시가 보여준 분노 감정은 개인적인 데서 촉발된 것이지만 개인적인 것을 넘어선다. 여성을 혐오하는 가부장제의 권력에 도전하고 그들의 권위를 교란시키는 여성 주체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김명순은 대단한 페미니스트이다. 그녀는 ‘사나운 조선’에서 좌절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핵심어 : 김명순, 분노, 여성 혐오, 혐오 발언, 페미니즘, 생명의 과실

1. 서론

김명순은 『청춘』(1917.11)지의 정식 등단절차를 거쳐 데뷔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문인이다. 그녀는 당대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연속해서 작품을 발표했는가 하면 1920년대에 2권의 창작집을 발간한 작가이자 10편의 외국작품을 번역한 번역가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없는 문학생활을 한, 성적으로 타락한 신여성’이라고 김동인은 「김연실전」에서 악의적인 매도를 했다. 일본에서 데이 트강간을 당했을 때에도 당대 사회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그녀를 비난했다. 생모가 기생 출신의 첩이란 이유로 ‘불순부정한 혈액을 지닌 우울과 퇴폐의 히스테리’라고 김기진은 그녀를 모욕했으며¹⁾, 염상섭은 ‘자유연애의 진의를 왜곡하고 남성 편력을 일삼는 타락한 자유연애의 사도’로 김명순을 비판했다.²⁾ 김명순을 추천하여 문단에 나오게 했던 이광수마저도 뚜렷한 근거도 내세우지 않은 채 데뷔작 ‘의심의 소녀’가 표절작이라는 애매한 언사³⁾로 그녀의 문학을 모독하였다.

김명순은 일본 작가가 쓴 『너희들의 배후에서』의 주인공 ‘권주영’이 자신을 모델로 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해지자 「탄실이와 주영이」를 발표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왜곡된 소문과 남성들의 적대적 공격에 대항하고자 했지만 결국 연재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무성한 소문과 비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연재를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녀는 작가로서도 한국근대문학사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했으며, 더욱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나 여성으로서 그녀의 인격과 자존심은 늘 모욕받고 비난받고 매도되었다. 김명순은 다름 아닌 문단의 동료였던 신남성들의 가장 빈번한 여성 혐오의 표적이었다.

1) 김기진, 「김명순, 김원주(일엽) 씨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1924.11.

2) 염상섭, 「감상과 기대」, 『조선문단』, 1925.7.

3) 이광수, 「춘원·요한 교담록」, 『신시대』, 1942.2.

일본의 페미니스트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는 여성 혐오(misogyny)를 여성에 대한 멸시를 나타내며, 여성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고, 여성을 나타내는 기호에만 반응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즉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객체화하고 타자화하는 데서 여성을 멸시하는 여성 혐오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녀에 의하면 여성 혐오는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sexism)를 바탕으로 하여 발생한다.⁴⁾

김명순은 자신에게 가해져오는, 성차별주의에 바탕을 둔 여성 혐오와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분노 감정을 자신의 시를 통해 반복해서 표출했다.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⁵⁾ 분노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쪽으로 인간을 행동하게 만들고, 그 분노를 무기로 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게 만든다.⁶⁾

따라서 본고는 분노 감정이 김명순의 시세계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라고 파악하여 분노 감정을 중심으로 그녀의 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하여 분노 감정이 191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말에 이르는 김명순의 전 창작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녀의 문학적 정서를 지배했다는 뜻은 아니다. 분노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정은 외부자극에 대한 단기적 반응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⁷⁾ 뿐만 아니라 유동적이어서 어떤 감정이 지속적으로 한 인간을 계속 지배하기는 어렵다. 그녀의 시에서 분노 감정은 1924년에서 1925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시기는 그녀가 남성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모욕받고 비난받고 매도되던 시기였다.

그동안 원본 전집⁸⁾이 발간되었고, 현대의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현대

4) 우에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2, 12~13쪽.

5) 실제로 김명순은 1927년까지 두 차례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전해진다. : 서정자·남은혜 편, 『김명순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834쪽.

6) 존 브래드쇼,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오제은 역, 학지사, 2004, 40쪽.

7)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1, 74쪽.

어로 번역한 작품집들도 나와 있다.⁹⁾ 하지만 김명순의 시세계는 동시대의 나혜석이나 김일엽과 비교할 때에도 아직 연구가 부진한 상태다. 근대성¹⁰⁾, 신여성¹¹⁾, 주제의식 분류¹²⁾, 동시대의 여성시인들과의 비교 연구¹³⁾, 타자성¹⁴⁾, 문학교육¹⁵⁾ 등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김명순의 시세계는 아직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2. 분노 감정과 페미니즘

분노(anger) 감정은 무엇일까? 에크만(P. Ekman)은 인간의 얼굴 표

-
- 8) 서정자·남은혜 편, 앞의 책.
 - 9) 맹문재 편역, 『김명순전집-시·희곡』, 현대문학, 2009.
송명희 편역, 『김명순 소설집 외로운 사람들』, 한국문화사, 2011.
 - 10) 황계군, 『김명순(金明淳)시의 근대성 연구』, 『선청어문』 제28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0, 23~38쪽.
 - 11) 방정민, 『김명순 시의 신여성상 연구 : 엘렌 케이 사상의 수용적 측면과 능가한 측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29~54쪽.
김윤정, 『김명순 시에 나타난 신여성 의식 연구』, 『비교한국학』 제22-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173~205쪽.
 - 12) 맹문재, 『김명순 시의 주제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53호, 한국언어문학회, 2004, 441~462쪽.
 - 13) 이경수, 『근대 초기 여성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과 여성 표상 : 나혜석·김명순·김일엽의 시에 나타난 종교성과 여성성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3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371~398쪽.
김영옥, 『1920년대 여성시인 연구 : 김일엽, 김명순, 나혜석의 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20호, 우리문화회, 2006, 159~185쪽.
이민호, 『시의 비유적 은유와 리얼리티 -1920년대 시의 여성성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26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51~279쪽.
진순애, 『신여성 시 연구 -김명순과 노천명 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47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101~124쪽.
 - 14) 최윤정, 『김명순 문학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3호(6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487~511쪽.
 - 15) 남민우, 『여성시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 : 1920년대 김명순의 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1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327~371쪽.

정을 기준으로 공포, 분노, 행복, 혐오, 슬픔, 놀람 등의 6가지 기본 감정을 분류한 바 있다.¹⁶⁾ 유교 문화권의 기본 감정인 희로애락(喜怒哀樂)에도 포함될 만큼 분노는 인간의 기본 감정의 하나이다. 심리학자 쉐러(K.R. Scherer)와 월보트(H.G. Wallbott)에 의하면 분노는 다른 사람에 의해 고의적으로 유발된 불쾌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감정으로서,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분노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¹⁷⁾ 즉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에 반하는 행위나 사건이 태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한 노여움이 바로 분노이다. 분노는 대개 자기 자신의 존엄성이 손상되었다고 느껴질 때 외부의 공격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기 위해 표현하는 감정이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분노가 공격적 태도로 표현되는 것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로 간주하며, 그것에 잘 대처할 것을 요구 받아 왔다.¹⁸⁾ 즉 분노 감정은 개인의 인격 완성이나 성숙한 인간관계, 사회의 조화로운 상태를 위해서는 다스려지고 통제되어야 할 감정, 치유되고 관리되어야 할 부정적 감정으로 여겨졌다.¹⁹⁾

반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분노를 정당한 감정으로 파악했으며,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은 일로 간주했다. 그는 첫째, 분노란 자기의 가치와 명예의 위반에 대한 반응이며, 둘째,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일어난 일에도 반응하는 감정이며, 셋째, 부정의에 대한 느낌과 인식에 근원을 둔다고 규정했다.²⁰⁾

16) 최현석, 앞의 책, 78쪽.

17) 위의 책, 114~115쪽.

18) 리처드 래저러스·버니스 래저러스, 『감정과 이성』, 정영복 역, 문예출판사, 1997, 37쪽.

19) 김영미·이명호, 「분노 감정의 정치학과 『제인 에어』」, 『근대영미소설』 제19-1호, 근대영미소설학회, 2012, 33쪽.

20) 위의 논문, 34쪽.

분노 감정은 실제적인 일상이나 인간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극복되고 지양되어야만 할 감정이라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분노 감정은 인간이 세계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호소하는 가장 격렬한 표현인 동시에 스스로의 자유를 구속하는 극복하기 힘든 조건이기도 하다.²¹⁾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생활 전반에 변혁을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분노를 원동력으로 한 인간의 적극적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분노 감정은 생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을 구속하는 반의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분노 감정이 가진 긍정과 부정의 이중성은 우리 인간이 처한 실존적 조건이기에 인간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대상이 아닐 수 없다.²²⁾

페미니즘(feminism)에서는 분노 감정을 위계적이면서 젠더화된 감정으로 파악하며,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함의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²³⁾ 과거 가부장제 시대에 분노 감정은 왕, 가부장 등 권력을 가진 남성들의 전유물로서 정당화된 반면 여성들의 분노 감정은 심각한 성격적 결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페미니스트들은 분노 감정을 가부장적, 인종적, 자본주의적 억압에 대한 반응이자 그 모순된 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건설적인 에너지로 재해석했고, 분노 감정을 여성 예술가들의 창작 에너지의 주요 원천으로 파악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분노 감정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문화가 강하게 유지되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와 미국의 19세기 초·중반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조차 분노가 가장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²⁴⁾

해리엇 러너(Harriet Lerner)는 분노를 우리가 상처받고, 권리를 침해

21) 권혁남, 「분노에 대한 인간학적 고찰」, 『인간연구』 제19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0, 78쪽.

22) 위의 논문, 78쪽.

23) 김영미·이명호, 앞의 논문, 35쪽.

24) 위의 논문, 36쪽.

당하고, 욕구나 바람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이자 호소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감정적인 문제들을 표현하도록 일깨워주는,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감정의 하나로 파악했다. 그녀에 의하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는 저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렇기에 존중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분노도 존중해야 할 감정의 하나이자, 문제를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건강한 에너지이다. 분노의 표현은 화를 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는 ‘거부(no)’를 표시하고, 자기 내부의 명령에는 ‘허락(yes)’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여성에게는 분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여성의 분노를 금기시하는 것은 남녀평등이 일반화된 현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즉 분노를 표출하는 여성을 위협적으로 느낀다. 하지만 분노를 표출하는 여성들은 모두의 삶에 도전하고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존재들이다.²⁵⁾

과거 가부장제 사회에서 분노는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하지만 여성운동 제2의 물결은 여성의 분노를 하찮은 사적 영역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공론화시켰다. 여성의 분노에 대한 재개념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성/감정의 이분법을 해체하며 대안적 패러다임의 하나로 감정의 가치와 중요성 및 감정이 갖는 전복적 창조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²⁶⁾ 앨리슨 재거(Alison Jaggar)는 여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힘없는 계층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분노 감정, 즉 금지된 감정인 분노가 많은 여성들이 공유하는 감정이라는 인식은 정치적, 인식론적으로 사물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하위문화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았다.²⁷⁾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노는 억압하고 억제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표출

25) 해리엇 러너, 김태련·이명선 역,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 : 여성을 바꾸는 분노의 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12~15쪽.

26) 심정순, 「감정의 포스트 여성주의 정치학-사라 케인의 Blasted와 4.48 Psychosis를 중심으로」, 『현대영미드라마』 제25-2호, 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12, 96~97쪽.

27) 위의 논문, 99쪽.

해야 할 정당한 감정이다. 분노 감정이야말로 가부장제의 모순된 체제를 변화시키는 창조적 에너지이자 여성문학의 중요한 미학 원리이다. ‘분노를 포함하여 감정은 그 자체로 행동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적인 에너지이다. 감정이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자아의 감정이자 자아와 타자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감정은 문화 단위이자 사회 단위인 것이다.’²⁸⁾

따라서 본고는 김명순의 시에 표출된 분노 감정을 부정적이거나 병적인 감정이 아니라 젠더 불평등과 가부장제의 부당한 억압에 저항하는 정당한 감정이며, 자아의 권리를 지켜낸 긍정 감정이라는 관점, 즉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그녀의 시를 해석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본고는 분노와 더불어 슬픔, 우울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역동적이어서 슬픔은 언제든지 분노로 바뀔 수 있으며, 슬픔이 분노로 바뀌면 슬픔은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도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면 분노가 되고, 자신에게 돌리면 슬픔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아 내부를 공격하면 우울이 되는²⁹⁾ 등 분노, 슬픔, 우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서정자와 남은혜 편의 『김명순문학전집』(2010)에는 모두 107편에 달하는 창작시가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9편이나 되는 시가 『생명의 과실』을 발간할 때 개작한 작품들이어서 실제 작품의 편수는 이보다 줄어든다. 본고는 김명순의 시를 원작과 개작 모두를 살펴보되 본고가 관심 갖는 분노 감정의 문제의식 면에서 개작이 한층 치열성을 보여주며, 작품의 완성도도 뛰어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작과 개작이 있는 경우 개작을 텍스트로 삼겠다.³⁰⁾ 그리고 독자들의 독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인

28) 에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역, 돌베개, 2010, 14~15쪽.

29) 최현석, 앞의 책, 145~147쪽.

30) 본고에서 논의하는 시 가운데 여러 편이 김명순의 중편소설 『외로운 사람들』(『조선일보』, 1924.4.20-5.31)에 삽입되어 있다. 즉 『싸움』, 『유리관 속에서』, 『내 가슴에』, 『저주』, 『유언』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외로운 사람들』에는 『그쳐요』, 『남방』,

용할 때의 현대어 번역은 맹문재 번역의 『김명순 전집-시·희곡』을 참조할 것이다. 31)

3. 김명순 시에 표출된 분노 감정

3.1. 왜 1924~1925년인가

김명순의 시에서 분노 감정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시기를 살펴보면 1924년부터 1925년 사이이다. 이 시기는 자전적 소설 『탄실이와 주영이』(『조선일보』, 1924. 6.14~7.15)를 발표했던 때이며, 첫 창작집 『생명의 과실』(한성도서주식회사, 1925.4)을 발간한 때이다. 왜 이 시기에 분노 감정이 집중적으로 표출되었을까?

그것은 전기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김명순이 자아존엄성의 손상을 느낄 만한 부당한 소문과 인격 침해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소설 발표 직후부터 김명순이 소설의 모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³²⁾의 『너희들의 배후에서(汝等の背後より)』(改造社, 1923)가 이익상에 의해 ‘여등(汝等)의 배후(背後)로

「분신」 등의 시가 삽입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작품집 『생명의 과실』을 펴낼 때에 보다 강한 톤으로 개작되었다.

31) 김명순은 「영희의 일생」, 「돌아다볼 때」, 「외로운 사람들」, 「탄실이와 주영이」 4편의 소설에서 자신의 시를 삽입하고 있다.

32) 나카니시 이노스케(1887~1958) :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여러 피억압자의 해방을 위해 노력했다. 조선으로 건너와 신문기자 생활을 하며 총독을 비판하고, 재벌에 의한 광산노동자들의 학대를 신문에 폭로하여 투옥되었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는 사회운동을 지도하는 한편으로, 조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장편소설 『붉은 흙에 싹트는 것』을 발표하고 『씨앗 뿌리는 사람』의 동인이 되어 작가로서도 활약했다. 태평양전쟁 중에도 반전, 반파시즘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여 전쟁에 협력하는 ‘뭇’은 절대 쥐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는 『붉은 흙에 싹트는 것』, 『너희들의 배후에서』, 『불령선인』 등 3부작이 있다.

서'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매일신보』에 연재(1924.6.27.~1924.11.8)된 후 단행본(1925)³³⁾으로 발간되었던 때이다. 김기진의 김명순, 김원주 씨에 대한 공개장(1924.11)도 발표되었고, 이미 소설 「제야」(1922)에서 김명순을 모델로 삼았던³⁴⁾ 염상섭이 감상과 기대(1925.7)에서 다시 타락한 자유연애의 사도라고 김명순을 맹비난했던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명순은 자신이 받았던 매체를 통한 공개적인 모욕과 부당한 인격 침해,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자존심의 손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노 감정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표출했다고 생각한다.

탄실(彈實)이 주영이』를 쓴 동기 자체가 일본 작가가 쓴 소설 『너희들의 배후에서』와 관련된 왜곡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³⁵⁾ 즉 김명순은 일본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조선 여성 권주영과 자신(탄실)³⁶⁾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둘러싼 세간의 소문과 남성들의 적대적 공격에 저항하고자 작품을 발표했던 것이다.

『생명의 과실』의 발간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창작집의 발간사에서 그녀는 “이 단편집은 오해받아온 젊은 생명의 고통과 비탄과 저주의 여름으로 세상에 내놓음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세간의 소문으로부터 받은 오해의 상처가 그녀의 젊은 생명에 “고통 비탄 저주”를 불러왔고, 창작집은 그 오해에 대한 저항 행위의 여름(결실)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는 김기진이 공개장에서 비난했듯이 단지 희소성 때문에 조선에서 문인으로 행세해 온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형의 작가라는 것, 작품도 없이 연애나 일삼는 작가가 아니라는 것을 창작집의 버젓한 발간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 따라서 『생명의 과실』에

33) 나카니시 이노스케, 『여등(汝等)의 배후(背後)로서』, 이익상 역, 문예운동사, 1925.

34) 송명희,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 모티프」,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13쪽.

35) 신지연, 「1920년대 여성 담론과 김명순의 글쓰기」, 『어문논집』 제48호, 민족어문학회, 2003, 330~331쪽.

36) 탄실(彈實)은 김명순의 아명이자 필명이다. 이밖에 망양초(望洋草), 망양생(望洋生)을 사용했다.

수록된 작품들은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남성 문인들의 적대적 공격과 비난에 대항하고자 전반적으로 보다 강한 저항적 톤으로 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맹문재는 김명순의 오해받아 온 상처를 “여성으로서 남성 지배적인 유교 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이러저러한 불이익”³⁷⁾이라고 범박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상황은 그녀로 하여금 “고통과 비탄과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녀를 구체적 타깃으로 한 대단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김명순은 김기진의 공개장에 대한 반박문을 써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했다.³⁸⁾ 이처럼 「탄실이와 주영이」의 발표와 창작집 『생명의 과실』을 발간했던 시기를 전후하여 그녀는 분노 감정에 압도적으로 지배될 수밖에 없었고, 작품집은 바로 분노 감정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명순이 이 시기에 느낀 감정의 절실함 때문에 분노 감정을 표출한 시들은 이전과 이후의 다른 시들에 비하여 문학성도 뛰어나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감동도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순에 대한 매체와 남성들의 비난에 대해서는 최명표³⁹⁾, 서정자⁴⁰⁾, 김경애⁴¹⁾ 등의 논문에서 자세히 밝혀져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구는 생략 하겠다.

37) 맹문재, 앞의 논문, 449쪽.

38) 1924년 11월 잡지 『신여성』에 실린 김기진의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에 대해서 김명순은 「김기진 씨의 공개장을 무시함」이라는 반박문을 준비한다. 하지만 『개벽』에 실린 『신여성』 12월호의 광고문 목차에 나와 있던 글을 『신여성』 12월호는 실지 않는다.

39)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221~245쪽.

40) 서정자, 「디아스포라 김명순의 삶과 문학」, 서정자·남은혜 편, 앞의 책, 29~67쪽.

41) 김경애, 「근대 최초의 여성 작가 김명순의 자아 정체성」, 『한국사상사학』 제39호, 한국사상사학회, 2011, 251~302쪽.

3.2. 슬픔·우울·분노를 넘나드는 감정의 격동

검고 붉은 작은 그림자들,
번개 치고 양 떼 몰던 내 마음에 눈 와서
조각조각 찢어진 붉은 꽃잎들같이도
회오리바람에 올랐다가 떨어지듯
내 어두운 무대 뒤에 한숨짓다.

나는 무수한 검붉은 아이들에게 묻노라
오오 허공을 잡으려던 설움들아
분노에 매 맞아 부서진 거울조각들아,
피 맞아 피에 젖은 아이들아
너희들은 아직 따뜻한 피를 구하는가.

아 아 너희들은 내 마음의 아픈 아이들
그렇듯이 내 마음은 피 맞아 깨졌노라
내 아이들아 너희는 얼음에서 살 몸
부질없이 눈 내려 녹지 말고
북으로 북행하여 파란 하늘같이 수정같이
얼어서 붙어서 맺히고 또 맺혀라.

(동경서)

-『내 가슴에』개작 전문⁴²⁾

『내 가슴에』에서 화자는 흘날리는 검붉은 눈발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한다. 즉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조각조각 찢어진 붉은 꽃잎들”이나 “분노에 매 맞아 부서진 거울조각들”, 그리고 “피 맞아 피에 젖은 아이

42) 서정자·남은혜 편, 앞의 책, 115쪽. : 원작은 『조선일보』(1924.5.27)에 발표되었으며, 작품집 『생명의 과실』을 출간할 때 부분 개작되었다.

들”과 같은 비유들을 통해 드러난다. 화자의 자아는 조각조각 찢어지고, 부서지고, 피에 젖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즉 파편화되고 분열되어 처절히 상처가 나 있다. 그래서 화자는 “내 마음은 피 맞아 깨졌노라”라고 직설어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검고 붉은’ 색채이미지가 나타내듯 자아는 상처받았으며, ‘작고 무수한’이나 ‘작은 그림자들’이 나타내듯 위축되고 분열되어 있다. ‘피에 젖은 아이들’에서 보듯이 상처받아 피를 흘리고 있다. 아니 그것에서 더 나아가 ‘피 맞아 깨졌노라’처럼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다. 따라서 화자가 머물 곳은 그에게 상처만을 안겨주는 지상이 아니다. 그러니 눈 내려 녹지 말고 차라리 북으로 북행하여 차디찬 얼음의 세계, 즉 눈이 녹아내리는 따뜻한 남쪽이 아니라 차디찬 북쪽, 그리고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일어서 붙어서 땀히고 또 땀허라.”라고 절규한다. 이처럼 화자의 가슴은 슬픔과 분노의 복합체인 한(恨)이 맺혀 있다. 그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고 파괴하는 이 지상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토해내는 처절한 비탄의 시학을 내 가슴에 는 보여준다.

이 작품의 화자는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인간에게 슬픔이 있는 이유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슬퍼함으로써 현재를 위해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이다.⁴³⁾ 그런데 슬퍼할 수조차 없다면, 결국 그 에너지는 인간 내면에서 얼어붙어 버리게 된다. 이 시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속담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자의 가슴속에 서리서리 맺힌 한을 처절히 드러내준다. 그런데 ‘한과 관련된 감정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감정으로, 후회, 슬픔, 허무, 한숨, 탄식 등과 같은 체념으로 나타나며, 둘째는 자신보다 타인을 향한 증오, 저주, 복수 등으로 나타난다.’⁴⁴⁾ 화자는 눈 내려 녹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 “부질없이 눈 내려 녹지 말고/ 북으로 북행하여 파란 하늘같이 수정같이/일어서 붙어서 땀히고 또 땀허라.”라고 절규한다. 즉 타인을 향한 증오, 저주, 복수의 감정 반응으로 변

43) 존 브래드 쇼, 앞의 책, 115쪽.

44) 최현석, 앞의 책, 140쪽.

화될 결기를 나타낸다.

밤 깊으면 설움도 깊어서
외로움으로 우울로 분노로
변조해서 고만 혼자 분풀이한다

씩씩 번을 긋는 것은 철없이도
“나라야 서울아 쓰러져라
부모야 형제야 너희가 악마거늘” 하고

씩씩 땅땅 찢고 두들기는 것은
피투성이 한 형제의 모양과 피 뺨는 내 가슴
“이 설움 이 아픔 이 원망을 어찌하랴”고

고만 지쳐서 잠들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휴지부(休止符) 그러나
또 밤들면 다시 시작하기 쉬운 외로움의 변조라

-「외로움의 변조(變調)」전문⁴⁵⁾

“밤 깊으면 설움도 깊어서/외로움으로 우울로 분노로”에서 보듯이 설움, 외로움, 우울, 분노는 별개의 감정이 아니라 단지 곡조만을 바꾼 유사한 감정이라고 화자는 말한다. 일본에서 음악을 전공한 김명순은 이 시에서 ‘변조(變調)’라는 음악 용어를 사용한다. 설움, 외로움, 우울, 분노는 언제든지 서로 넘나들고 바뀔 수 있는 속성을 지닌 감정이라는 것을 김명순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씩씩 번을 긋는 것은”에

45) 서정자. 남은혜 편, 앞의 책, 169쪽. : 『동아일보』(1925.7.20)에 발표하였다. 3,4 연은 서정자·남은혜 편『김명순문학전집』에는 하나의 연으로 합쳐져 있지만 필자가 의미상 분리하였다.

서의 ‘씩씩’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전부’라는 뜻으로 ‘번(煩)’은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열이 나서 손과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몸과 마음이 답답하여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쭉쭉 움직인다는 뜻이다. “나라야 서울아 쓰러져라/부모야 형제야 너희가 악마거늘”이라고 이 나라, 서울, 부모, 형제를 향해 ‘악마’라는 원망과 저주를 내뿜는 것으로 화자는 밤이 되면 혼자서 분풀이를 한다. ‘나라, 서울, 부모, 형제’는 화자를 설움과 외로움에 빠뜨린 장본인들이다. 즉 그에게 고통을 안겨준 존재는 먼 나라 먼 곳의, 그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는 이 나라 서울의, 부모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가슴이 피를 내뿜듯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3연의 “씩씩 찢고, 팡팡 두드리느” 행위는 “씩씩 번을 긋는 것”보다 더 강력한 동작이다. 이를 통해서도 그를 공격하는 부모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 원망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는 피투성이가 된 감정은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지쳐서 잠드는 동안만은 설움과 원망의 감정이 다음날 아침까지 휴지부다. 그러다 다음날 밤이 깊어지면 다시 ‘피 뿜는’ 원망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다. 즉 원망의 감정과 외로움이 변조된 설움, 우울, 분노 감정은 수시로 교차한다. 즉 상대방을 원망하는 분노 감정에 사로잡혔다가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설움(슬픔)에 사로잡혔다가 자아 내부를 공격하는 우울의 감정에 빠지는 등 시시때때로 화자의 감정은 요동치고 있다. 이 시는 당시 김명순이 처했던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감정의 교착 상태를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3.3. 응전을 선언하다

늪은 병사가 있어서
오래 싸웠는지라
온몸에 상처를 받고는 싸움이 싫어서
군기(軍器)를 호미와 괭이로 갈았었다.

그러나 밭고랑은 거세고
지주는 사나우니
씨를 뿌리고 김을 매어도
추수는 없었다.

이에 늙은 병사는
담담한 회포에 졸려서
날마다 날마다 낮잠을 자더니
하루는 총을 쏘는 듯이 가위를 눌렀다.

아- 이상해라 이 병사는
군기를 버리고 자다가 꿈 가운데서 싸웠던가
온몸에 멍이 들어 죽었다.

사람들이 머리를 비틀었다
자나 깨나 싸움이 있을진대
사나 죽으나 똑같은 것이라고
사람마다 두 팔에 힘을 내뻗었다.

(서울에서)

-「싸움」개작 전문⁴⁶⁾

싸움에서 ‘늙은 병사’는 나이를 먹어 싸움을 싫어하는 자이다. 그는 싸움이 싫어서 싸우는 무기인 군기를 호미나 팽이와 같은 농기로 바꾸어 농사를 짓는다. 하지만 농사짓는 일도 결코 쉽지 않다. 지주의 횡포도 심하고 힘들게 농사를 지었지만 추수가 없다. 늙은 병사는 낮잠을 자다 꿈 가운데서 싸우다가 온몸에 멍이 들어 죽고 만다. 이 시의 내용은 아무리

46) 위의 책, 104~105쪽. : 원작은 『조선일보』(1924.5.19)에 발표되었으며, 작품집 『생명의 과실』을 출간할 때 보다 강경한 어조로 개작되었다.

싸움을 피하여 농사로 도피해 보아도 싸워야 하는 병사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꿈 가운데 싸우다 죽은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자나 깨나 싸움이 있을진대” 그리고 “사나 죽으나 똑같은 것”이라면, 즉 어차피 싸워야 할 운명이라면 이를 회피하지 않고 “두 팔에 힘을 내뻐야” 적극적으로 응전하겠다는 치열한 결의를 화자는 보여준다. 이는 부당하게 그녀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세상과의 싸움을 회피하거나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전하겠다는 김명순의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녀를 향한 남성들의 여성 혐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김명순의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다.

헤리엇 러너는 여성들의 잘못된 분노 표출의 두 가지 예로 ‘요조숙녀(nice-lady)’와 ‘미친 여자(bitch)’를 들었다. 요조숙녀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며 분노를 회피하고 참는다. 반면 미친 여자는 쉽게 화를 내지만 비효과적인 싸움을 벌이거나 불평불만을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⁴⁷⁾ 『싸움』에서 화자는 저항해야 할 부당한 상황 속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요조숙녀형의 잘못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군기를 버린 병사가 죽었듯이 화를 내지 않고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피는 자기 패배와 종속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분노를 억압하게 되면 자이는 절망감과 죄책감에 빠져 문제를 해결할 통찰력도 능력도 사라지게 만든다. 그렇다고 하여 김명순의 분노 표출이 비효과적인 불평불만에 빠진 미친 여자형의 잘못된 분노 표출이라는 것 역시 아니다. 그녀의 분노 표출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

뵈는 듯 미는 듯한 설움 속에
잡힌 목숨이 아직 남아서

47) 헤리엇 러너, 앞의 책, 16쪽.

오늘도 괴로움을 참았다
 작은 작은 것의 생명과 같이
 잡힌 몸이거든
 이 설움 이 아픔은 무엇이나
 금단(禁斷)의 여인과 사랑하시던
 옛날의 왕자와 같이
 유리관 속에서 춤추면 살 줄 믿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면
 재미나게 살 수 있다기에
 미답지 않은 세상에 살아왔다.
 지금 이 보이는 듯 마는 듯한 설움 속에
 생장(生葬)되는 이 답답함을 어찌하라
 미련한 나! 미련한 나!

-「유리관 속에」개작 전문⁴⁸⁾

유리관 속에」에서 화자는 세상의 풍파로부터 격리된 유리관(琉璃棺) 속에서 “금단(禁斷)의 여인과 사랑하시던/옛날의 왕자와 같이” 춤이나 추면서 살 줄 믿었던 순진한 자이며,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면/재미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순수한 사람이다. 그러나 유리관 속이 재미와 기쁨의 공간이 아니고 ‘괴로움’을 참아야 하는 공간이며, ‘설움과 아픔’의 공간이고, ‘생장(生葬)되는’ 답답한 공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화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개탄한다. 화자는 “보이는 듯 마는 듯한 설움 속에/잡힌 목숨이 아직 남아서/오늘도 괴로움을 참았다”나 “작은 작은 것의 생명과 같이/잡힌 몸이거든/이 설움 이 아픔은 무엇이나”에서 드러나듯 유리관에 갇힌 채 설움, 괴로움, 아픔을 인내해 온 자아를 반성한다. 특히 ‘작은 작은 것의 생명’이나 ‘잡힌 목숨과 몸’과 같았던 유리관 속에서의 삶, 자칫

48) 서정자. 남은혜 편, 앞의 책, 109쪽. : 원작은 『조선일보』(1924.5.24)에 발표되었으며, 작품집 『생명의 과실』을 출간할 때 부분 개작되었다.

자기비하와 자기부정에 빠져 있었던 자아를 반성한다. 이 시에서 ‘유리관’은 세상과 격리된 세계이며, 자유로운 자아를 가두는 억압된 세계로서 죽음과 다름없는 세계이다. 세상을 외면하고 자기만의 순수한 세계로 도피하여 춤추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었던 것은 김명순의 솔직한 욕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자는 설움, 성장되는 괴로움, 미련함에 빠져 있던, 즉 ‘요조숙녀(nice-lady)’형의 인내를 해 온 과거의 자아를 성찰한다. 자아 성찰을 통해 화자는 자신을 모욕하고 경멸했던 세상에 대해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게 되고, 부당한 억압에 저항하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3.4. 여성 혐오를 되받아치다

조선아 내가 너를 영결(永訣)할 때
개천가에 고꾸라졌던지 들에 피 뿔었던지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해다오.
그래도 부족하거든
이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보아라.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우리는 영영 작별된다.
이 사나운 곳아 사나운 곳아.

-「유언」개작 전문⁴⁹⁾

유언이란 시를 썼다는 사실은 김명순이 이 시를 쓸 당시 거의 자살 지경에 이른 심각한 수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프로이트(Freud)에 의하면 우울증은 심각한 낙심,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모든 행동의 억제, 자신에 대한 비

49) 위의 책, 119쪽. : 원작은 『조선일보』(1924.5.29)에 발표되었으며, 작품집 『생명의 과실』을 출간할 때 보다 강경한 어조로 개작되었다.

난과 자기비하감 등을 비롯해 누군가가 자신을 처벌해 주었으면 하는 자기징벌적이고 망상적 기대를 한다는 점에서 정상적 감정인 애도와 구별되는 병리적 감정이다.⁵⁰⁾

서정자는 「유언」을 쓸 즈음 김명순은 김기진의 공개장뿐만 아니라 임노월을 두고 김원주와 엮혔던 삼각관계에 의한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 했다.⁵¹⁾ 더구나 김기진은 김명순의 출생에 엮힌 가족사와 임노월과의 동거 사실을 공개장을 통해 세상에 까발렸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남성들이 용단폭격으로 김명순을 맹비난함으로써 화자는 조선이라는 사회를 “이 사나운 곳아 사나운 곳아.”라고 두 차례나 반복해서 호명하며, “죽은 시체에 게라도 더 학대해다오.”라고 피학증마저 나타낸다. 조선은 그녀를 매도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가부장적 남성들이 판을 치는 사나운 나라다. 그들의 가학증은 상대방이 개천가에 고꾸라졌거나 들에 피를 뿜혀 내팽개쳐졌거나를 막론하고,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를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자행된다. 따라서 화자는 “이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라도/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보아라.”라고 피학적인 감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유언’이란 죽음을 결심하는 결의를 품고 자신을 혐오하는 대상을 향해 분노 감정을 쏟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윤정은 「유언」이 사회에 대한 여성의 피해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⁵²⁾ 하지만 「유언」의 발화 수준은 단순히 가부장제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나 피해의식을 표현하는 수위를 넘어선다. 즉 화자를 학대하고 위해를 가하는 대상을 향한 격렬한 분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만,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책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타인의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과민하면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보복하는 사고에 몰두

50) 프로이트, 『무의식에 관하여 - 프로이트 전집 13』, 윤희기 역, 열린책들, 1997, 248~249쪽.

51) 서정자, 「디아스포라 김명순의 삶과 문학」, 서정자·남은혜 편, 앞의 책, 46쪽.

52) 김윤정, 앞의 논문, 184~185쪽.

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우울보다 분노를 자주 경험하며, 자기비하적인 생각이 강하고 무기력한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분노보다는 우울을 더 자주 지배적으로 경험한다.⁵³⁾

그런데 「유언」에서는 자신을 책망하는 우울의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부당한 무시와 학대에 대하여 그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분노 감정이 보다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 이때의 분노 감정은 상처 입은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며, 가학적인 대상에 대한 필사적인 반항이요, 저항이다. 여성 주체의 존엄성 수호는 가부장제 사회의 전면적 폭력에 대한 분노 감정의 표출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에 나타난 강경한 어조(tone)는 「유언」이 상처받아 울거나 피해의식에 함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독자는 이 시에서 그녀에게 부당한 비난과 모욕을 가하며 학대하는 조선사회에 대한 시인의 저항과 울분을 읽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충동인 타나토스(thanatos)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충동인 에로스(eros)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유언’이란 일종의 모순어법이다.

따라서 김명순이 극도로 상처받아 영혼이 황폐해진 시기에 분노 감정을 문학적으로 표출시킨 것은 정신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글쓰기는 자기 치유력을 강화하며 체험하는 나와 관찰하는 나 사이의 분리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글쓰기는 외상이나 무의식적인 불안에 쉽게 접근하게 하며, 또한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⁵⁴⁾ ‘우울증 환자가 자신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털어 놓고 자신을 괴롭혔던 상처와 분노를 표출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우울증 증상이 약해진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려면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그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⁵⁵⁾

53) 방유리나, 우울증과 관련된 분노서사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제30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489~490쪽.

54) 변학수, 『통합문학치료』, 학지사, 2010, 101~102쪽.

55) 최현석, 앞의 책, 133쪽.

길바닥에 구르는 사랑아
주린 이의 입에서 굴러 나와
사람 사람의 귀를 흔들었다
'사랑'이란 거짓말아.

처녀의 가슴에서 피를 뽑는 아귀야
눈먼 이의 손길에서 부서져
착한 여인들의 한을 지었다
'사랑'이란 거짓말아.

내가 미덥지 않은 미덥지 않은 너를
어떤 날은 만나지라고 기도하고
어떤 날은 만나지 말라고 염불한다
속이고 또 속이는 단순한 거짓말아.

주린 이의 입에서 굴러서
눈먼 이의 손길에서 부서지는 것아
내 마음에서 사라져라
오오 '사랑'이란 거짓말아!
-「저주」개작 전문⁵⁶⁾

이 시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의 추구는 부재한다고 저주한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길바닥에 구르는 사랑아/주린 이의 입에서 굴러서/눈먼 이의 손길에서 부서지는 것"처럼 천박한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미덥지 않은 미덥지 않은 너를/어떤 날은 만나지라고 기도하고/어떤 날은 만나지 말라고 염불한다/속이고 또 속이는

56) 서정자·남은혜 편, 앞의 책, 117쪽.

단순한 거짓말아.”에서 보듯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불신의 갈등, 만나고 싶은 욕망과 그것을 억압하는 심리 사이의 갈등과 같은 사랑의 본질적 속성 때문이 아니다. 그런 것은 단순한 거짓말에 속할 뿐이다. 화자가 사랑을 거짓말이라고 저주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사랑이 사람의 귀를 흔드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아귀와도 같은 탐욕스런 자의 주린 입에서 흘러나온 소문과 소문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믿어버리는 ‘눈 먼 이’의 손길에서 부서지는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아귀’에 비유된다. 이때 아귀는 불교적 의미의 아귀(餓鬼), 즉 계율을 어기거나 탐욕을 부려 아귀도에 떨어진 귀신이란 의미와 주둥이가 큰 물고기 ‘아귀’의 중의적 비유이다. 즉 김명순을 향해 사납고 탐욕스런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남성들에 대한 이중적인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귀와도 같은 그들의 혐오 발언은 처녀의 가슴에 피를 뽑게 하고, 착한 여인의 마음에 한을 짓게 만들었다. 세상은 김명순과 관련하여 남자와 연애 잘 하는 여자, 음탕한 여자라고 술한 소문을 퍼트렸다. 그런 소문을 퍼트린 자는 ‘아귀’와도 같은 커다란 입을 가진 탐욕스런 자이며, 그 소문에 무비판적으로 휘둘리는 자는 ‘눈 먼’ 봉사와도 같이 사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처럼 여성을 모욕하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순진한 처녀와 착한 여인의 가슴에 피를 뽑고 한을 짓게 하는 저주스런 일이 되고 말 뿐이다. 이 시는 진실한 사랑을 추구할 수 없는 사회에 분노하며, 아무리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려 해도 사랑의 진정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천박한 사회에서 사랑은 한낱 저주요, 거짓말이라는 냉철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순은 사랑에 대하여 매우 정신주의적인 태도, 즉 플라토닉 러브를 추구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⁵⁷⁾ 그녀가 쓴 에세이 「이상적 연애」(『조선문단』, 1925.7)를 보면 연애를 “각각 별다른 개성을 가지고 서로

57) 송명희, 「김명순의 소설과 ‘외로운 사람들’ 모티프 연구」, 『비평문학』 제5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6, 96쪽.

용화한 심령끼리 절주해 나가는 최고 조화적 생활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녀는 이 글에서 이상적 연애를 제대로 추구할 수 없는 타락한 현실에 대한 개탄을 보여준다. 즉 비연애의 다섯 가지 사례를 열거하며 연애에 있어서의 인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그의 다른 사람과의 연애 고백을 무시하고 그 상대자를 욕되게 하며, 연애한다고 음행을 꿈꾸는 것. 2.술 취하여 그 집 문을 두드리며 그 상대자를 욕되게 하는 것, 난잡히 사실 없는 일을 글로 써내는 것. 3.너무 공상한 결과 연애라고 없는 욕적 관계를 사칭해서 상대자를 거짓 더럽히는 것. 4.역시 공상의 결과로 타인 앞에서 그 동경하는 대상을 만나서 압(狎)한 반말로 남의 거짓 감정을 사는 것. 5.어느 대상에게 연애를 고백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일시간이 지나지 못해서 욕하는 것 등⁵⁸⁾이 구체적 사례들이다. 예로 든 비연애의 사례들에서 그녀의 연애에 쏟아졌던 비난의 실체와 왜곡의 다양한 양상들이 드러난다. 예시된 다섯 사례들은 시 「저주」에서 왜 사랑을 거짓말이라고 저주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남성들은 그녀에 관한 왜곡된 소문을 퍼트리며 그녀를 모욕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인격적인 연애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혐오스런 비인격자들이다.

나는 들었다

끓는 이에게는 밥 먹으란 말밖에는 안 들리고

음부(淫夫)에게는 탕녀의 소리밖에 안 들리고

난봉의 입에서는 더러운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을

-「무제」 전문⁵⁹⁾

무제 에서 화자에게 가학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대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다름 아닌 음부(淫夫)이자 난봉꾼이다. 그들은 자신이 음부이자 난봉꾼이면서 오히려 여성을 향해 탕녀라고 비난하고,

58) 서정자·남은혜 편, 앞의 책, 655쪽.

59) 위의 책, 167쪽. : 『조선일보』(1925.7.6)에 발표.

더럽다고 모독을 가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내쫓는 혐오 발언, 즉 ‘탕녀의 소리’, ‘더러운 소리’야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음탕하고 더러운 욕망을 상대방에게 투사(projection)한 것이라는 것이다. 즉 김명순을 향해 탕녀라고 더럽다고 모욕하고 매도하는 남자들이야말로 그들 내면의 음탕하고 더러운 욕망을 그녀에게 투사하는 더러운 음부(淫夫)이자 난봉꾼이라는 공격이다. 이 시는 여성 혐오를 혐오로 되받아치는 혐오 발언, 즉 미러링(mirroring)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알의 쌀알을 얼른 집어 물고
하늘 나는 마음아
사람의 구질구질한 꼴을
눈여겨보느냐 네 작은 새의 몸으로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쌀물에 취해 너털거리는 주정뱅이
아무나 모르고 툭툭 다 치고 지난다
세상아 이 책임 뉘에게 지우느냐
-「무제」전문⁶⁰⁾

김명순은 또 다른 「무제」에서 하늘을 나는 작은 새가 인간을 내려다보며 조롱하는 톤으로 진술한다. 새는 ‘구질구질한’ 사람의 꼴을 보기 싫어 “한 알의 쌀알을 얼른 집어물고/하늘을 나는” 존재이다. 새가 내려다보는 인간세계는 “이리 비틀 저리 비틀/쌀물에 취해 너털거리는 주정뱅이/아무나 모르고 툭툭 다 치고 지난다”처럼 너털거리는 주정뱅이, 즉 알코올 중독자처럼 이성이 마비된 상태이다. 더구나 그 책임마저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세계인 것이다. 이 시는 주정뱅이처럼 이성이 마비되고 졸렬한 남성에 대한 혐오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작품으로 해

60) 위의 책, 168쪽. : 『조선일보』(1925.7.17)에 발표.

석된다. 그들은 작은 새만도 못한 존재이다. 아니 작은 새의 경멸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김명순은 자신의 감정을 작은 새에게 이입하여 그녀를 혐오하는 남성들을 내려다보며 혐오하고 경멸한다. 이 시도 혐오를 혐오로 되받아친 시라고 할 수 있다.

젠더 위계 서열의 계급사회에서 남성들의 혐오 발언은 여성들을 열등하고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시킨다. 그것은 여성에게 모욕이 되고 위협이 되고 상처가 된다. 하지만 김명순은 자신의 시에서 여성 혐오에 침묵하지 않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면서 혐오 발화자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것은 여성 혐오의 권위를 교란시킨다. 이처럼 김명순의 시는 가부장제의 권력에 도전하고 그들의 권위를 교란시키는 여성 주체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김명순은 자신에게 가해져 오는 부당한 언어폭력에 침묵으로 인내하지 않고 분노 감정으로 저항했다. 그리고 분노 감정에서 나아가 그들의 혐오를 혐오로 되받아치는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그녀의 혐오 발언은 그녀를 향해 쏟아진 부당한 혐오를 시정하라는 강력한 촉구이다. 그녀는 자신의 시를 통해서 분노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자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1924년부터 1925년의 시기에 김명순이 자신의 시에서 분노 감정을 집중적으로 표출한 이유는 그 시기에 그녀가 남성 문인들과 매체로부터 부당한 공격과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즉 그녀를 향한 성차별적인 여성 혐오가 극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노는 그녀가 받은 상처에 대한 반작용이자 저항 감정이다. 아니 그녀에게 위협을 가하는 공격자들에게 그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에서 표출된 감정이다.

마리 J. 마츠다(Mary J. Matsuda)는 소수자의 다수자를 향한 혐오 발

언은 ‘분노에 찬 시’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종속된 집단의 지배 집단을 향한 증오감의 표현, 혐오, 그리고 분노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발언과 달리, 지배 집단을 향한 구조적 지배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⁶¹⁾ 마리 J. 마츠다의 말처럼 김명순의 시에 나타난 혐오 발언은 ‘분노에 찬 시’이다.

여성들을 향한 남성들의 혐오 발언은 젠더 위계 서열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을 열등하고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시킨다. 그것은 여성에게 모욕이 되고 위협이 되고 상처가 된다. 하지만 김명순은 자신의 시에서 여성 혐오에 침묵하지 않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거나 되받아치며 혐오 발화자의 권위를 교란시켰다. 김명순의 시는 남성중심적 권위를 교란시키고 가부장제의 권력에 도전하는 여성 주체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페미니스트로서 김명순의 진정한 가치가 발생한다.

그동안 페미니즘은 다분히 여성을 피해자로 위치지우고,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와 남성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고발해왔다. 그동안 김명순의 시에 대한 해석도 상처나 피해의식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녀를 둘러싼 여러 소문들이 그녀의 자아존엄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힌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김명순이 그로 인한 상처와 피해의식에만 빠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한다.

김명순은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외국작품을 번역하는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켰다. 더욱이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시 속에서 분노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자신에게 가해져 오는 부당한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다. 그녀가 표출한 분노와 혐오 발언은 그녀를 향해 쏟아진 여성 혐오가 부당한 것이므로 그것을 시정하라는 강력한 신호이다.

김명순의 시에서 표출된 분노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개인적인 것을 넘어선다. 여성을 혐오하는 가부장제의 권력에 도전하고

61) 유민석,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여/성이론』 제33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143쪽.

남성들의 권위를 교란시키는 여성 주체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 자체가만으로도 김명순은 대단한 페미니스트이다. 우리는 김명순이 성차별주의를 바탕으로 한 남성들의 여성 혐오에 능동적 응전을 했다는 사실에 보다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김명순의 나이가 40대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여러 매체와 남성 문인들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혐오 발언들을 쏟아냈다. 결정적으로 김동인의 「김연실전(1939~1941)」은 그녀로 하여금 더 이상 조선에서 살아갈 가치도 응전할 힘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 김명순은 「해저문 때」(1938)에서 “나는 이 사회 언론계에 글을 써주고 유쾌한 때를 가져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나 그뿐이었습니까. 근 10년 조선을 떠난 있던 재작년에도 나를 알지도 못하는 열교도(劣教徒)들이 저들의 경영지에 나의 악평을 써서 나는 분한 대로 도쿄 사쿠라다 경시청에 고발한 일까지 있었습니다.”⁶²⁾라고 매체의 폭력에 대해 원망의 감정을 표출한다. 그리고 “전일의 생활을 전부 저들의 사기에 잃었으므로 나는 일상 외국에 살고 싶습니다. 그 원인을 적출하자면 목표 없는 생활에 염증이랄까요.”⁶³⁾라고 그녀에 대해 악의적인 혐오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조선에 염증을 느끼며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초까지 계속된 한 여성에 대한 집요한 여성 혐오는 마침내 그녀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도록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녀는 분노할 힘마저도 소진되고 말았다. 그녀가 다른 곳도 아닌 일본의 청산뇌병원에서 사망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한 인간이 결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폭력적이었던 ‘사나운 조선’의 가부장적 남성들의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여성 혐오, 그들의 언어폭력의 필연적 결과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2) 김명순, 「해저문 때」(동아일보, 1938.1.15·16·18), 송명희 편역, 앞의 책, 358쪽.

63) 김명순, 「해저문 때」, 위의 책, 360쪽.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맹문재 편역, 『김명순전집-시·희곡』, 현대문학, 2009.
서정자·남은혜 편, 『김명순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송명희 편역, 『김명순 소설집 외로운 사람들』, 한국문화사, 2011.

2. 단행본

- 변학수, 『통합문학치료』, 학지사, 2010, 101~102쪽.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1, 74, 78, 114~115, 140, 145~147쪽.
에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역, 돌베개, 2010, 14~15쪽.
우에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2, 12~13쪽.
존 브래드쇼,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오제은 역, 학지사, 2004, 40, 115쪽.
주디스 버틀러, 『혐오 발언』, 유민석 역, 알렙, 2016, 308쪽.
프로이트, 『무의식에 관하여-프로이트 전집13』, 윤희기 역, 열린책들, 1997, 248~249쪽.
해리엇 러너,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 여성을 바꾸는 분노의 심리학』, 김태련·이명선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12~16쪽.

3. 논문

- 권혁남, 「분노에 대한 인간학적 고찰」, 『인간연구』제19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0, 77~105쪽.
김경애, 「근대 최초의 여성 작가 김명순의 자아 정체성」, 『한국사상사학』제39호, 한국사상사학회, 2011, 251~302쪽.
김영미·이명호, 「분노 감정의 정치학과 『제인 에어』」, 『근대영미소설』제19-1호, 근대영미소설학회, 2012, 33~61쪽.
김윤정, 「김명순 시에 나타난 신여성 의식 연구」, 『비교한국학』제22-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173~205쪽.

- 김영옥, 「1920년대 여성시인 연구 : 김일엽, 김명순, 나혜석의 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20호, 우리문학회, 2006, 159~185쪽.
- 남민우, 「여성시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 : 1920년대 김명순의 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1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327~371쪽.
- 맹문재, 김명순 시의 주제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53호, 한국언어문학회, 2004, 441~462쪽.
- 방유리나, 「우울증과 관련된 분노서사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제30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489~490쪽.
- 방정민, 「김명순 시의 신여성상 연구 : 엘렌 케이 사상의 수용적 측면과 능가한 측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29~54쪽.
- 송명희,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 모티프」,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1~27쪽.
- 송명희, 「김명순의 소설과 ‘외로운 사람들’ 모티프 연구」, 『비평문학』 제5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6, 89~122쪽.
- 심정순, 「감성의 포스트 여성주의 정치학-사라 케인의 Blasted와 4.48 Psychosis를 중심으로」, 『현대영미드라마』 제25-2호, 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12, 93~120쪽.
- 유민석,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여/성이론』 제33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126~152쪽.
- 이경수, 「근대 초기 여성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과 여성 표상 : 나혜석·김명순·김일엽의 시에 나타난 종교성과 여성성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3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371~398쪽.
- 이민호, 「시의 비유적 은유와 리얼리티 -1920년대 시의 여성성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26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51~279쪽.
- 진순애, 「신여성 시 연구-김명순과 노천명 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47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101~124쪽.

-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221~245쪽.
- 최윤정, 「김명순 문학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3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487~511쪽.
- 황재균, 「김명순(金明淳)시의 근대성 연구」, 『선청어문』 제28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0, 23~38쪽.

Abstract

Feelings of Anger in Kim Myeong-Sun's Poetry

Song, Myung-Hee

This paper analyzes feelings of anger is a one of the important key words to clarify Kim Myeong-sun's poetic world with her poems such as 「fight」, 「in the glass coffin」 「in my mind」, 「curse」, 「will」, 「modulation of loneliness」, 「untitled」 #2 etc. the feeling of anger in her poetry particularly expressed from 1924 to 1925. During this period, she was intensively criticized and attacked by male writers and media. So the emotion of anger warns that attackers who harm to her stop to do, her sentiment showed resistance to rectify their unwarrantableness.

In the past a patriarchal society, woman's anger emotion was negative feeling not to display. However, the anger in feminism is not negative feeling to suppress and repress, it's rather just right and active emotion to transcend social discrimination. this anger feeling is creative energy to change contradictory system of patriarchy and creative aesthetic principle of female literature.

In this paper, I understood the feeling of anger in Kim Myeong Sun's poetry is reasonable emotion to resist unfair oppression of gender's inequality and patriarchy, and we saw the feeling as positive emotion to defend ego's right.

However, it dealt with anger and similar feelings such as sadness, depression etc together. Because the emotion is so dynamic, sadness could change into anger anytime, after changing, sadness disappear. in addition, if anger emotion couldn't be expressed properly and attacked to the inside

of ego, it became depression. the same situation, if the reason blame another person, it became anger, blaming to oneself, it became sadness.

Mary J. Matsuda said minority group's hatred comment toward majority group should look anger poetry. According to her, subordinated group's hatred expression, loathing, and rage toward dominant group is different from hatred expression toward nonperson, because it doesn't carry out structural ruling toward dominant group. Like Mary J. Matsuda's words, the feeling of anger and hate speech in Kim Myeong-sun's poetry are anger poetry toward male as majority.

Male's hate speech toward female make woman degraded in patriarchy social of gender hierarchy. However, Kim Myeong-sun didn't become silence about female hatred for women in her poetry, and she upset authority of male as hatred remarker by her anger voice.

The anger emotion in Kim Myeong-sun's poetry was stirred not only private thing but also beyond private thing. Kim Myeong-sun is considerable feminist itself because she challenge the supremacy of patriarchy that abhor female and she repeatedly expressed the subject of woman that disturb their authority. she didn't frustrate in 'fierce Jeseon' and expressed poetics of anger through poetry.

Key words : Kim Myeong-Sun, Anger, Misogyny, Hate Speech, Feminism, *Fruits of Life*

■ 본 논문은 2016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